



HANNAH CHOI MINISTRIES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범사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 보면 “모든 일 또는 평범한 일”이라는 두가지 뜻이 있으며 영어로는 In all circumstances 즉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사정”이라는 세가지 뜻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바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정 속에서 일어나는 좋고 나쁜 일들과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생활화 되라는 뜻인 것입니다. 생활화된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In Christ Jesus”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폐하시려고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구절은 우리의 그 어떤 암담한 환경과 험난한 상황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고난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 몸소 당하신 형벌과 고통을 묵상하면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축복의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시 50:23)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